LG화학, 고성능 콘크리트원료 생산

폴리카본산계 폴리머 1만톤 공장 가동 … 중국·동남아 수출도 기대

LG화학이 전라남도 여수공장에 콘크리트용 고성능 혼화제 핵심원료인 <폴리카본산계 폴리머> 1만톤 생산설비를 완공하고 본격적인 공장 가동에 들어갔다.

<폴리카본산계 폴리머>는 콘크리트에 첨가해 구조물의 강도 및 작업성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는 혼화제의 핵심원료로 LNG탱크, 댐, 교량,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등에 효과적이다.

또 콘크리크가 딱딱해지는 경화시간을 연장해 작업자들이 더욱 편하게 일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두께를 줄여 시공비를 줄일 수 있다.

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어 건축물의 수명단축으로 인한 자원낭비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해 벽 두께를 줄임으로써 전용면적을 넓힐 수 있다.

미국,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공상의 편리성 및 구조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연간 20만톤, 5억달러의 <폴리카본산계 폴리머>가 사용되고 있다.

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연간 2000톤 이상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.

LG화학은 <폴리카본산계 폴리머>의 국산화로 한 해 1만톤을 생산해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대한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3/01/22>